

안전성·가성비 통하나?

물 건너 온 이쿼녹스·클리오 순항

한국지엠 이쿼녹스

‘최첨단 경량화’ 첫날 200대 계약

르노삼성 클리오

소형차 월 최고 판매실적 기록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중형 SUV 이쿼녹스와 소형 해치백 클리오가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두 차량 모두 수입차다.

이쿼녹스와 클리오는 미국 GM 본사와 프랑스 르노 본사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차량이다. OEM 수입차란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완성차업체가 모회사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를 말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이쿼녹스는 탄탄한 주행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르노 클리오는 가성비와 앞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지엠이 지난 7일 출시한 이쿼녹스는 가격 논란속에서도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쿼녹스는 출시 첫날 200대가 넘는 계약을 기록했다.

출시부터 이쿼녹스가 국내 SUV 경쟁 모델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이쿼녹스가 미국보다 싼 가격, 최첨단 경량화 기술을 통해 강화된 안전성, 주행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데일 설리번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사장은 “(이쿼녹스는) 출시 당일 200대가 판매되는 등 양호하게 잘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현재 국내 도착한 차량은 45일 이내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이 이쿼녹스의 초도 물량을 9000대 가량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M의 중형급 신형 SUV 아카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쿼녹스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체 하중을 줄이면서 견고한 최적의 구조를 실현했다.

이쿼녹스는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기가스틸 20%를 포함, 차체의 82% 이상



한국지엠 쉐보레 이쿼녹스 주행모습.



르노 클리오.

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채택해 이전 세대 대비 180kg 가벼우면서도 22% 이상 높은 차체 강성을 실현했다.

고강성 경량화 차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이전 세대 대비 2배가 넘는 구조용 접착제와 쉐러를 사용해 차체를 보다 단단히 고정함과 동시에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했으며, 주요 부위에 격벽을 설치해 차체 강성을 향상시켰다.

뛰어난 동력성능도 갖추고 있다. 요소수 방식의 첨단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1.6리터 CDTi 친환경 디젤 엔진은 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통해 136마력의 최대 출력과 32.6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이쿼녹스 가격은 ▲LS 2987만원 ▲LT 3451만원 ▲프리미어 3892만원이다.

르노삼성 클리오도 출시 첫 달인 지난 달 756대가 팔리며 소형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클리오는 소형차 부분에서 월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같은 달 출시된 현대차 ‘2018 엑센트’는 같은 기간 387(구형 모델포함)대 판매됐다.

국내 들어온 르노 클리오는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INTENS) 트림에 동일한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지만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와 3D 타입 LED 리어 콤포네이션 램프,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II (T맵, 이지파킹, 스마트폰 풀미러링), 후방카메라, 전방경보장치 같은 고급 사양이 클리오 인텐스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된 것이 감점이다.

르노 클리오는 젠(ZEN)과 인텐스(INTENS)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약 1000만원 낮은 ▲젠 트림 1990만원 ▲인텐스 트림 2320만원에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25년 2조 목표 향해 뿔뿔”

티웨이항공 창립 8주년

영업이익률 23% ‘고속 성장’
“작년 선포한 목표치에 순항중”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은 티웨이항공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업계 3위(1분기 영업이익 기준)에 올라선데 이어 하반기 기업공개(IPO) 작업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비전선포식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의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당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2025년까지 10대의 대형기를 포함해 총 50대의 기체를 운영하며 매출 2조원을 목표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5840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정 대표가 밝힌 예상치인 매출액 5500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지난해 기세를 몰아 선전했다. 특히 1분기 영업

이익은 46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1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3%로 국내 6개 LCC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재무건전성 강화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공개(IPO)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한금융투자과 대신증권은 공동 대표 주관사로 결정했고 예비심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성공적인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앞둔다.

중장거리 운항을 위한 신기종 도입 계획도 이미 끝났다. 티웨이항공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기 ‘보잉 737 MAX 8’은 기존 보잉 737-800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항속거리가 더 길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리, 중앙 아시아 등 중장거리 인기 노선 취항이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2일 대구-하바롭스크 정기편 노선을 취항한다. 하바롭스크는 지난 4월 취항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대구에서 출발하는 두번째 러시아 직항 노선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일본, 동남아 지역 등 신규 노선을 취항해 하늘길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신규 노선은 하코다테, 아사히카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IoT로 욕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욕실’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는 아이ես동서의 욕실 리모델링 브랜드 ‘이누스바스’와 함께 욕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욕실에 IoT 기술을 적용, 환풍기·비데·스위치 등 다양한 홈IoT 기기를 서로 연동해 자동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동시실행’ 및 ‘자동실행’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한 욕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욕실 조명 스위치를 켜면 비데가 스스로 켜지고, 비데에 사용자가 앉으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스마트 욕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IoT 비데일체형 양변기와 환풍기가 포함돼있는 욕실인테리어 상품이다. 이 두 제품은 와이파이 환경이면 이통사와 상관없이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인 ‘IoT@home’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IoT 비데는 이누스바스의 인기 비데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체형 양변기 ‘TW950’ 모델에 IoT를 적용한 제품이다. IoT 비데는 앱으로 자동 물내림 및 수압, 노즐 위치 등 사용자별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또 ‘예약 설정’ 기능으로 비데를 원하는 시간, 요일에 켤 수 있다.

환풍기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업 힘펠과 함께 개발한 ‘IoT 제로크’ 모델이다. 스마트폰으로 제습 및 환기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 욕실 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6년 만에 풀체인지... 베일벗은 ‘더 뉴 CLS’

메르세데스-벤츠 9990만원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4도어 쿠페 ‘더 뉴 CLS’가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이전 모델보다 새롭게 디자인한 전면부와 뚜렷한 윤곽을 더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청담 전시장에서 더 뉴 CLS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에는 400d 4매틱과 400d 4매틱 AMG라인 등을 3분기 내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올해 안에 고성능 버전인 CLS 53 AMG 4매틱 플러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더 뉴 CLS는 최신 기술의 새로운 직렬 6기통 디젤, 가솔린 엔진 탑재와 플래그십 모델 더 뉴 S 클래스에 탑재된 반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했다.

더 뉴 CLS 400d 4매틱 모델의 3.0리터 디젤 엔진은 캠트로닉 가변 밸브-리프트 컨트롤을 최초로 적용하고 알루미늄 엔진 블록과 실린더 벽의 나노슬라이드 코팅 등의 기술로 최고 출력 340마력과 최



18일 공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뉴 씨엘스 400d 4매틱 앞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벤츠 코리아

대 토크 71.4kg·m의 성능을 자랑하며 연료 소모량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또 AMG 라인에 합류하는 더 뉴 CLS 53 4매틱+는 3.0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EQ 부스트’로 불리는 통합 전기모터와 48볼트 전기 시스템을 더해 최고 출력 435마력과 최대토크 53.0kg·m를 자

랑한다. EQ부스트 시스템은 48볼트 전기 시스템이 더해진 전기모터로 구성돼 동력성능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 뉴 CLS의 400d 4매틱과 400d 4매틱 AMG라인이 각각 9990만원, 1억900만원이며 향후 출시될 CLS 53 AMG 4매틱 플러스는 미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SK엔카닷컴 사이버 공격 대응 우수기업 선정

국내 최대 자동차 유통 플랫폼 SK엔카닷컴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에서 자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체계 점검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매년 지속적인

로 실시해오고 있는 행사다. 지난 달 16~17일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약 38개 기업, 9000여명이 참가했다.

SK엔카닷컴은 이번 훈련에서 지속위협공격(APT), 디도스(DDoS), 모의침투 등에 대해 뛰어난 대응역량을 나타내며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양성운 기자